

#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홍성희(계명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수)  
김순미(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결과 및 해석
  - V. 결론
- <참고문헌>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1997년의 경우 총취업자 중 28.27%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면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전체 취업자의 8.88%의 비중을 보였다(통계청, 1998).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노동시장을 위축시키게 됨에 따라 대량실업과 많은 경제적 문제를 낳게 되었다. 실직으로 소득원을 잃게 되거나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득창출의 대안으로 가족기업의 창업과 같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영업부문은 산업과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사이에 남자취업자가 67만명 감소한 반면 단독 자영업자의 수는 오히려 11.6만명이 증가한 것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류재우·최호영, 2000).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가족기업의 성격을 지닌 소규모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

아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위험이 크고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지희, 1998).

가족기업은 가정 및 기업이라는 이중기능에서 유래되는 양가속성을 가짐으로써 가정영역과 기업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체이다. 동시에 가족기업체계 상의 중복성으로 인해 가족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가계의 경제적 기능과 기업의 경영적 기능의 미분리에 따른 재무관리의 어려움, 기업자금조달 능력의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재무관리능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가족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가정영역과 기업영역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를 살펴 보고 이러한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기업의 이중기능체계

가족기업은 가정 및 기업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조직의 이중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대부분의 가족기업은 조직과 재정상태에 있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중기능간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재정상태에 따라 가계재정상태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거나 가족체계의 기능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고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족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가족원 및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재정에 영향을 미친다(Bian & Heck, 1995). 가족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감소하면 기업의 재정상태 악화로 가계의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가계의 재정상태는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정도 및 기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족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가족기업의 가정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2.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분석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지표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이 있다. 소득은 자료의 획득이 비교적 쉽고 잠재적 구매력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소득원천의 평가절상이나 절하의 폭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소득에 비해 과거와 미래의 생활수준이 반영된 척도로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잘 나타내준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역시 가계의 재정상태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어도 보유한 자산이 다르면 잠재적인 소비력도 달라지므로 장기적인 재정상태분석에 중요하다(Crystal & Shea, 1990; 김순미, 1998에서 재인용). 가계는 부채를 효용의 증가나 자산 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동안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될 위험도 커지므로 부채보유량은 자산과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균형과 불균형이 가계의 재정상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재정상태의 측정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산의 보유수준이나 저축수준보다는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가계의 재정상태분석은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보다는 재정상태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재무비율로서 소득 대 소비비율(Lytton, Garman & Porter, 1991; Bae, Hanna & Lindamood, 1993)과 재정상태의 안정도를 파악하는 자산 대 부채비율(Marlowe & Godwin, 1988; 손상희, 1995)을 들 수 있다. 소득 대 소비비율은 저축과 투자를 제외한 총지출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초과지출여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자산 대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지불불능여부, 즉 파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 3.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분석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재무관리자는 제반 재무결정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및 현재의 재정상태와 재무성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업의 경영성어나 재산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의 상대적 가치, 즉 재무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구성비율과 관계비율, 정태비율과 동태비율, 비율의 의미에 따른 분류방법 등이 있다(문숙재 외, 1999).

구성비율은 대차대조표의 총자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관계비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매출액과 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매출액이익률과 같이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과 항목을 비교하는 것이다.

한편 정태비율과 동태비율은 비율의 성격이 한 시점, 또는 일정기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비율은 정태비율에 속하고,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나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은 동태비율에 속한다.

이밖에도 근래 많이 사용되는 재무비율의 분류는 전체 항목과 항목의 비교, 항목과 항목간의 비교 또는 각 재무비율이 나타내는 의미나 재무비율이 재무분석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라 수익성 비율이나 생산성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이 있는데, 유동성비율은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유동자산 대 유동부채를 측정하는 유동비율과 당좌자산 대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당좌비율이 있다. 한편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성과측정에 유용하고, 순이익 대 총자본을 측정하는 총자본이익율이나 순이익 대 매출액을 비교하는 매출액순이익율 등이 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을 측정하는 생산성비율은 기업의 장래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액 대 종업원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생산에 의해 이루어진 부가가치 대 총자본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 4.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 및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 및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영업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경제인식 및 전망 등과 가족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가족수, 자녀수, 6세 이하 자녀유무, 가족형태,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가계의 재정상태 등이 있으며, 기업특성요인으로서 근무시간, 고용인수, 재택근무여부, 기업의 재정상태 등이 있다.

Rowe 등(1993)의 재택가족기업 연구에서는 남성기업가의 사업 순수입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Heck 등(1993)의 연구에서도 가족기업 소유주가 남성일 때 가계총소득에서 가족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차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주의 교육수준은 가족기업의 소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Rowe et al., 199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 대 가족기업소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높은 교육수준이 전문성 및 기술과 관련하여 영리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Heck et al., 1993). 한편 직종에 따라서는 Rowe 등(1993)의 연구에서 9가지로 분류된 직종 중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마케팅 및 세일즈였다.

또한 가족구성은 가족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을 결정하며 노동시간 및 노동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Heck(1992)의 연구에서는 6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근무시간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ck, 1992), Walker 등(1993)의 연구에서는 6세

미만의 자녀는 여성기업가의 순사업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기업가의 순사업소득에는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8세 이상 자녀의 존재는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고, 또 기업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가족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의 순소득이 더 많았다(Rowe et al., 1993).

기업특성으로서 근무시간은 기업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Heck et al, 1993), 선행연구(Rowe et al., 1993; Heck et al., 1993)에서 종업원수도 기업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의 규모와도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의 재무율에 근거하여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한다. 둘째, 매출액, 순수입, 종업원수에 기초하여 측정된 수익률비율과 생산성비율을 통해 기업재정상태를 파악한다. 셋째, 자영업자의 특성, 가족 및 가구의 특성 및 재정적 요인이 가계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자영업자의 특성, 가족 및 가구의 특성, 재정적 요인 및 자영업관련 요인이 기업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320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소유 소기업가계를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자료 중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남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표본은 남자 자영업자 590명, 여자 123명으로 총 7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총지출 대 총소득율 총자산 대 총부채율 총매출 대 순수입율 총매출 대 종업원비율 연간총소득(만원) 연간총지출(만원) 총자산(만원) 총부채(만원) 순자산(만원) 월평균총매출액(만원) 월평균순수입(만원)	가계총지출 / 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 / 가계총부채 기업총매출액 / 기업순수입 기업총매출액 / 기업의 총종업원수 가구의 근로소득 + 자산소득 + 이전소득 + 기타소득 가구의 총지출 가구의 예금 + 주식 + 채권 + 보험 + 계 + 부동산 가구의 사채 + 금융기관부채 + 빌린돈 + 비금융기관부채 + 월부 및 외상 가구의 총자산 - 총부채 자영업의 월평균 매출액 자영업의 월평균 순수입
<b>독립변수</b> <u>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u>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현재경제인식 미래경제전망  <u>가족 및 가구의 특성</u> 가족수 자녀수 6세이하 자녀여부 18세이상 자녀여부 소득원수 가족형태 거주지역 <u>재정적 요인</u> 주택소유여부  <u>자영업 관련 요인</u> 직업안정성만족도 종업원수 주당작업시간 출퇴근여부	1 = 남    0 = 여 1 = 35세 미만    2 = 35-44세    3 = 45-54세    4 = 55세이상 1 = 중학교 이하    2 = 고등학교 졸업    3 = 대학이상 1 = 건설업    2 = 도소매/수리업    3 =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4 = 기타 지난 1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태 1=매우 나빠졌다    3 = 비슷하다    5 = 매우 좋아졌다 내년의 경제상태 대한 인지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 =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5 = 매우 좋아질 것이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수(명) 함께 거주하는 자녀수(명) 1 = 있음    0 = 없음 1 = 있음    0 = 없음 함께 거주하는 가구내 총소득원수(명) 1 = 핵가족    2 = 확대가족 1 = 서울특별시    2 = 광역시    3 = 중소도시    4 = 군부지역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1 = 자가    0 = 임대  1 = 매우 불만족스럽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만족스럽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친지 + 가족 + 종업원수(자영업자 포함)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당시간 자영업종사를 위해 철회근 여부 1 = 출퇴근자영업,    0 = 재택자영업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계재정상태 및 기업재정상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성자영업자 가구와 여성자영업자 가구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및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자영업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 비교

- 1) 자영업자 가구의 개인적 특성, 가족/가구관련 특성 및 재정적 요인  
 남성자영업자 가구와 여성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자영업자가구(590)		여성자영업자가구(123)		$\chi^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35세미만	77	13.05	32	26.02	13.409 ***
	35-44 세	295	50.00	50	40.65	
	45-54 세	135	22.88	25	20.33	
	55세이상	83	14.07	16	13.01	
교육수준	중학교	150	25.42	60	48.78	26.893 ***
	고등학교	313	53.05	43	34.96	
	대학교이상	127	21.53	20	16.26	
거주지역	서울	227	38.47	33	26.83	9.925 *
	광역시	131	22.20	29	23.58	
	중소도시	174	29.49	39	31.71	
	군부지역	58	9.83	22	17.89	
가족형태	핵가족	523	88.64	102	82.93	3.075
	확대가족	67	11.36	21	17.07	
자녀연령 a	6세미만	131	26.20	26	22.61	0.996
	7-18 세	200	44.00	50	43.48	
	18세이상	149	29.80	39	33.91	
주택소유 여부	유	353	59.83	66	53.66	1.600
	무	237	40.17	57	46.34	
		남성자영업자가구(590)		여성자영업자가구(123)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수(명)	3.941	1.035	4.171	0.981	2.343 *
	자녀수(명)	1.761	0.908	1.943	0.862	2.117 *
	현재경제인식(1-5점)	3.576	0.778	3.488	0.881	-1.033
	미래경제전망(1-5점)	2.917	0.683	2.967	0.677	0.752
	소득원수(명)	1.397	0.656	2.049	0.612	10.615 ***

\* 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무자녀표본은 제외되었음

성별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 보면, 남성연령이 여성연령에 비해 35세이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교육수준도 남성자영업자가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남성자영업자가 서울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고 여성자영업자는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다. 또 가족수 및 자녀수의 경우 여성자영업자 가구가 남성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더 많았으며, 소득원수는 여성자영업자 가구가 평균 2.0명으로 남성자영업자 가구의 1.39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 가계의 경우 부부취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 자영업자 가구의 직업관련요인

자영업자의 직업관련요인은 <표 3>과 같이 출퇴근여부에 있어서 남성자영업자의 60.34%가 출퇴근을 하는 반면, 여성자영업자는 출퇴근과 재택의 경우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재택근무로 이루어지는 가족기업이 가정과 경제활동의 양립에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기혼여성들에게 시간사용의 융통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업과 가정의 병존을 위해 유리한 대안이라는 선행연구(Heck, Winter & Stafford, 1992; Heck, Stafford, Rowe & Owen, 1993)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남녀자영업자가 인식하는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자영업자의 경우 더 높았는데, 이는 여성자영업자의 경우 부부취업의 형태를 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구의 부업적 특성으로 인한 직업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가족기업 내의 종업원수는 남성자영업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성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자영업자의 직업관련요인

	남성자영업자가구(590)		여성자영업자가구(123)		$\chi^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 a	건설업	78	13.22			
	도소매/수리업	242	41.02	89	72.36	
	운수,통신,금융보험업	89	15.08			
	기타	181	30.68	34	27.64	
출퇴근 여부	출퇴근	356	60.34	62	50.41	
	재택	234	39.66	61	49.59	
		남성자영업자가구(590)		여성자영업자가구(123)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업안정성만족도(1-5점)		2.716	0.882	2.959	0.843	2.881 **
종업원수(자영업주포함)(명)		2.504	5.068	1.350	1.326	-4.733 ***
주당작업시간(시간)		62.092	23.005	66.835	26.766	1.814

※ 변수에 따라 응답자수는 차이가 있음

a 직업종류에 대한 남녀응답자의 차이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

## 2. 자영업자 가구의 재정상태분석

자영업자 가구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표 4>를 보면, 가계재정상태는 총소득, 총지출 및 총부채에 있어서 남자자영업자 가구와 여자자영업자 가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자영업자 가구가 남자자영업자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출에서 나타난 차이는 여자자영업자의 경우 남편의 직업과는 독립적으로 가족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부부각각의 소득원으로 인한 총소득수준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가계의 총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총부채의 수준이 남자자영업자보다 더 높은 것은 여자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업비용으로 인한 부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을 보면, 총지출 대 총소득율은 남자자영업자의 경우 0.87 정도, 여자자영업자는 0.7 정도를 나타내 가계재정상태가 안정적이며,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있어서는 남자자영업자와 여자자영업자 모두 부채상환능력이 있었으나 남자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여자자영업자에 비해 약 4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총매출액과 월평균순수입에 있어서는 순수입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자자영업자의 순수입이 높았는데, 이는 남자자영업자의 직업분포가 여자자영업자의 주직업인 도소매/수리업은 물론 도소매/수리업보다 높은 매출을 보이는 건설업과 운수, 통신,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 총매출액 대 순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성비율 또한 남자자영업자의 경우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소유한 가족기업이 여성이 소유한 가족기업보다 순수입이 높게 나타난 Rowe 등(1993)의 연구결과나 남성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이 여성이 운영하는 가족기업보다 총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Heck 등(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표 4> 가족기업의 가계재정 및 기업재정특성

	남성자영업자가구(590)		여성자영업자가구(123)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간총소득(만원)	3427.791	2794.620	4715.780	3254.266	4.084 ***
연간총지출(만원)	1945.085	1034.486	2300.852	1061.308	3.383 ***
총자산(만원)	8502.913	7439.282	8209.398	8196.967	-0.367
총부채(만원)	589.125	1242.943	990.979	1807.290	2.353 *
순자산(만원)	7912.788	7484.174	7218.420	8451.396	-0.845
월평균총매출액(만원)	11490.719	21501.593	9126.000	12511.320	-1.090
월평균순수입(만원)	2548.014	1515.472	1517.463	1101.277	-8.779 ***
총지출 대 총소득율	0.869	2.179	0.699	0.942	701.000
총자산 대 총부채율	100.520	420.784	26.533	93.094	332.000
총매출 대 순수입율	0.487	0.302	0.296	0.253	616.000 ***
총매출 대 종업원수비용	6293.119	8897.027	9253.158	12854.842	604.000

※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4.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재정상태를 총지출대 총소득율, 총자산 대 총부채율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는 가족기업가계의 자영업자의 성별, 교육수준, 미래경제전망, 거주지역과 주택소유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5>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총지출 대 총소득율		총자산 대 총부채율	
	B	$\beta$	B	$\beta$
자영업자의 성별(남자)	0.179 *	0.157	45.151	0.047
자영업자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0.001	0.426-3E	-58.417	-0.052
35 - 44세	-0.057	-0.063	20.658	0.027
45 - 54세	-0.009	-0.008	-30.799	-0.034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중학교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0.047	-0.052	-1.823	-0.002
대학교 이상	-0.177 *	-0.164	120.453	0.132
자영업자의 직업 (건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0.057	0.063	-49.635	-0.065
자영업자의 현재경제인식	-0.015	-0.028	-0.675	-0.002
자영업자의 미래경제전망	0.020 **	0.031	-13.129	-0.024
자녀수	-0.087	-0.149	25.189	0.051
소득원수	0.006	0.010	-26.791	-0.050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0.219 *	-0.228	50.045	0.061
광역시	-0.214 *	-0.207	-36.386	-0.041
중소도시	-0.273 **	-0.280	-10.551	-0.013
총자산(총소득) a	-0.562-5E	-0.091	0.031 ***	0.226
총부채(총지출) a	-0.128-4E	0.048	-0.039	-0.109
주택소유여부(자가)	0.105 *	0.114	27.934	0.036
Intercept	0.970		27.731	
F value	3.160 ***		2.116 **	
R-square	0.1469		0.1034	
Adj R-square	0.1004		0.0545	

\*  $p < .05$ , \*\*  $p < .01$ , \*\*\*  $p < .001$

a 총소득대 총지출율의 회귀분석에는 총자산과 총부채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총자산 대 총부채율의 회귀분석에는 총소득과 총지출 변수를 적용하였음

총지출 대 총소득의 비율은 남성자영업자 가구가 여성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도 남성자영업자 가구의 총지출이 많거나 또는 동일한 지출이라도 여성자영업자의 총소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대학교 이상인 경우 총소득에서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자가 미래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총지출 대 총소득의 비율이 높았으며, 군부지역 거주자보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군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총지출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 임대보다 총지출 대 총소득율이 더 높았다. 한편 가족기업의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소득뿐이었으며, 총소득이 많을수록 부채 중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자산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를 능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5.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재정상태를 총매출액 대 순수입율, 총매출액 대 종업원비율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총매출액 대 순수입율에는 자영업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직업과 종업원수, 출퇴근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자영업자의 기업은 여성자영업자의 기업에 비해 총매출 대 순수입의 비율이 컸으며,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이상자의 경우 총매출 대 순수입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총매출에서 순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서, 사업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기업으로 인한 순수입이 증가한다고 한 Rowe(1993)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할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총매출 대 순수입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총매출 대 순수입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는 직종에 따라서 매출액 및 순수입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매출액이 동일할 경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수입이 다른 직업의 순수입에 비해 많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총매출 대 순수입의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Rowe 등(1993)의 연구에서 유급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의 순소득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많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종업원수는 기업의 규모 및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출퇴근하는 집단에 비해 재택근무를 하는 집단의 총매출 대 순수입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출퇴근자영업인 경우 재택자영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총매출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영업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이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인 집단에 비해 35-44세인 경우, 또 45-54세인 경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 비해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이, 그리고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총매출액 대 종업원의 비율이 높아 교육수준에 따른 생산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총매출 대 순수입율에서와 같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할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총매출 대 종업원율이 증가하였다.

<표 6>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총매출 대 순수입율		총매출 대 종업원비율	
	B	$\beta$	B	$\beta$
자영업자의 성별(남자)	0.185 ***	0.144	-2327.209	-0.061
자영업자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0.032	0.037	561.089	0.021
35 - 44세	0.011	0.018	2658.227 *	0.143
45 - 54세	-0.021	-0.029	3248.518 *	0.147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중학교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0.093 **	-0.155	2171.141 *	0.116
대학교 이상	-0.159 ***	-0.215	3494.107 **	0.153
자영업자의 직업 (건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0.175 ***	-0.288	3343.511 ***	0.178
자영업자의 현재경제인식	0.004	0.010	-358.024	-0.030
자영업자의 미래경제전망	-0.008	-0.019	952.283	0.070
가족수	0.013	0.044	-394.012	-0.043
가족형태	0.068	0.073	-2491.675	-0.086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0.003	-0.006	999.291	0.052
광역시	-0.052	-0.072	676.477	0.030
중소도시	-0.018	-0.027	1414.942	0.069
순자산	0.237-5E	0.059	0.006	0.005
주택소유여부(자가)	-0.029	-0.047	1287.250	0.068
6세이하 자녀여부	0.039	0.061	-549.389	-0.028
18세이상 자녀여부	0.008	0.011	-168.534	-0.008
직업안정성만족도	0.001	0.004	-96.900	-0.009
종업원수 a	-0.013 ***	-0.212		
주당작업시간	-0.001	-0.041	2.064	0.005
출퇴근여부(출퇴근)	-0.069 **	-0.113	767.848	0.040
Intercept	0.451 **		3667.469	
F value	7.488 ***		2.753 ***	
R-square	0.2270		0.0924	
Adj R-square	0.1967		0.0588	

\* p < .05, \*\* p < .01, \*\*\* p < .001

a 총매출 대 종업원 비율의 회귀분석에서는 종업원수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음.

## V. 결론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를 살펴 보고 이러한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재정상태는 총소득, 총지출 및 총부채에 있어서 남자자영업자 가구와 여자자영업자 가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자영업자 가구가 남자자영업자에 비해 재정상태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지출 대 총소득율,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둘째, 자영업자 가구의 기업재정상태에 있어서 남자자영업자 가구와 여자자영업자 가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월평균순수입이었으며, 총매출 대 순수입율의 수익성율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자영업자의 월평균순수입이 남자자영업자에 비해 낮지만 수익성율은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영업자의 성별, 교육수준, 미래경제전망, 거주지역과 주택소유여부였으며,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소득뿐이었다. 따라서 총지출 대 총소득의 안정성율은 재정적 요인보다는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및 가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총자산 대 총부채율의 부채상환능력은 소득수준의 재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총매출 대 순수입율은 자영업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직업과 종업원수, 출퇴근여부가 영향을 미쳤으며, 총매출 대 종업원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영업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이었다. 따라서 수익성율은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관련요인이, 그리고 생산성율은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은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 총매출 대 순수입율, 총매출 대 종업원비율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교육수준이 인적자본으로서 중요한 기반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교육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를 비교하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 자영업자의 직업은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총매출 대 순수입율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직종은 기업의 규모 및 매출, 수익률 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영업의 직종에 따른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출퇴근여부는 총매출 대 순수입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특히 여자자영업자의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재택근무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의 직업과 기업재정상태간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외에 근본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점은 가족기업의 가계

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간의 상호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후속연구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5.
- 김연정(1997),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희(1998), 가족기업가정에 관한 연구-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철중(1999). 재무분석,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한국노동경제논집 월례 학술발표회.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문숙재·송혜림·김선희·이기영·김난도·김순미·박미석·조희금(1999), 공공가정경영 :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최강식·정진화(1997), 여성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최승빈·임윤수·박철용·정강원(1999), 현대재무관리론, 서울 : 도서출판 대경.
- 통계청(1998), 한국통계연감 .
- Bian, J., & Heck, R. K. Z.(1995) What We Can Learn about Family Businesses over Tim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88-1992, Family Business Annual Research Papers IFBPA, 11, 39-63.
- Heck, R. K. Z.(1992), At-Home Income Generation, JFEI, 13(3), 241-244.
- Heck, R. K. Z., Stafford, K., Winter, M., Hennon, C. B.(1993), Home-Based Business and Family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52-356.
- Rowe, B. R., Heck, R. K. Z., Haynes, G. W., & Bentley, M. T.(1993), Family-Owned Home Businesses and their Economic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62-365.
- Walker, R., Furry, M. & Masuo, D.,(1993), The Gender Factor in Hours Worked and Net Income of Home-Based Business Owner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66-370.